



The 40th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4호 2008년 6월
www.diabetes.or.kr



40주년 기념인터뷰 ④ 13~14대 회장 허갑범 교수

교과서 발간, 당뇨주간 창설 등 학회의 내실 다지다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네 번째 인물은 1991년~1995년 제 13대, 14대 회장직을 역임한 허갑범 명예교수이다. 허갑범 교수는 2002년 연세의대를 퇴임한 후 현재 허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는 3월 28일(금) 오후 2시 허내과의원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허갑범 교수는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친숙하게 생각하는 당뇨병 의사 중 한 명이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당뇨병 책자도 여러 권 발간했고 TV를 통해서도 낮이 익어서겠지만, 무엇보다 푸근하고 넉넉한 그의 웃음이 마주하는 이의 병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리라. 이야말로 명의의 큰 덕목일 것이다. 그의 넉넉함은 당뇨병학회도 풍요롭게 만들었다. <2면으로 이어짐>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13~14대 회장
허갑범 교수
인터뷰



02

03



역사의 현장
「당뇨병학」 발간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04



40주년 기념우표
기부금모금현황

40주년 기념사업단
중간 활동보고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

교과서 발간, 당뇨주간 창설 등 학회의 내실 다지다

〈1면에서 이어짐〉

허갑범(이하 허) : 1972년 제대 후 학교로 돌아오니 3, 4대 회장이셨던 이상용 선생님이 학회의 총무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학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당시 학회 회원이 5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족적인 분위기이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발전이 안되어 있었어요.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학회가 크게 발전하여 회원수도 2천명이 넘었고 학문적으로도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유형준(이하 유) : 선생님께서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당뇨병학 교과서 발간, 당뇨주간 창설, 학회 소식지 발간 등의 큰 일을 하셨습니다.

허 : 학회 차원에서 당뇨병학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인슐린을 발견한 밴팅 박사의 탄신일에 맞춰 발간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당시 학회 총무였던 이현철 교수를 중심으로 여러 임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발간과 당뇨주간을 준비하면서 한 일간신문사와 좌담회를 하기도 했는데 김응진, 민현기, 이상중, 이태희 선생님 그리고 제가 참석했었어요.

소식지는 학회 회원간에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 선생님이 쌓으신 업적의 혜택을 저희가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느끼시는 점과 당부 말씀이 있으십니까.

허 : 우리 학회만큼 학구적이고 모든 면에서 서로 화합하며 화기에애한 학회가 없을 겁니다. 학회를 처음 만드신 김응진 선생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고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은 후학들이 모두 힘써왔지요. 많은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포함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백 명이 참가하는 등 우리 학회는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학회입니다.

지금도 당뇨병학회가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만큼 발전했지만, 좀더 욕심을 내자면 학회 차원에서 기금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므로 세계적인 연구가 될만한 테마를 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좀더 학문적인 점프 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회의 목적은 첫째는 학문적인 발전이고 둘째는 친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도와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 : 선생님께서는 일반인들이 당뇨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학회도 선생님처럼 사회 공헌에 힘써야 할 터인데요.

허 : 우리나라 1년 의료비 지출이 3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당뇨병에 직접 드는 비용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대비용과 인력 손실 비용까지 합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과거 2~30년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당뇨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학회가 당뇨병의 일차 예방, 이차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여야겠고 보건당국과도 많은 협력을 해야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당뇨병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일질환이라기 보다는 고혈압, 비만, 이상지혈증 등 대사증후군과 서로 맞물려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습관병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 : 대통령 주치의로서 큰 역할을 하였고 퇴임을 하신 이후에도 개원을 하셔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허 : 의과대학 학장으로 행정 쪽에서도 일해봤고 대통령 건강을 돌보는 역할도 했지만 언제나 의사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일념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당뇨병 예방을 비롯하여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한 당뇨병 환자가 만 여명 되는데 금년 중에 정리하여 기본적인 임상자료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유 : 선생님께서는 인슐린저항성을 포함한 당뇨병학의 진수를 한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꾸준히 열정을 쏟아오셨습니다.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허 : 학교 다닐 때부터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해서인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너무 믿지 말고 언제나 자기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항상 말하지요.

유 :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면에는 담지 못하였지만 허갑범 교수는 인슐린저항성과 대사증후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국형 당뇨병의 특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그의 열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물론 학회에 대한 사랑도 더불어.

허갑범 13~14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비상하는 우리 학회가 되기를 기
원합니다.
2008.3.28 허갑범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40년사 편찬 진행상황

6월 10일(화) 현재 11개 위원회(학술, 교육, 간행, 수련, 연구, 약제 보험, 홍보, 국제협력, 진단소, 역학소, 캠프소)와 3개 지회(호남, 충청, 경인)에서 40년사 원고가 들어왔다. 전회장, 전이사장들의 회고담은 6월 10일 현재 5명(김덕희, 강성구, 김선우, 이현철, 김광원 교수)의 옥고가 들어왔다.

기념사업단은 9개 소연구회에 새로이 원고청탁을 하였으며 마감은 6월 30일(월)이다. 김영설 회장과 최동섭 이사장에게 각각 40년사 인사말과 발간사 청탁을 하였으며,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축사 청탁을 하였다. 해외 축사는 IDF, IDF-WPR, ADA, JDS에 의뢰하였다.

한편, 민현기 교수(4월 30일, 책 3권, 신문 스크랩 1장)와 김영설 교수(6월 3일, 사진 119점, 학회 회원증 및 영수증)가 40년사 자료를 보내주었다.

기념우표 기부금 182명 참여

40주년 기념우표를 통한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에 6월 10일(화) 현재 182명이 참여, 총 10,490,000원이 모였다. 기념사업단은 4월말 전 회원에게 기념우표를 발송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유관단체 및 학회와 해외 당뇨병학회에도 기념우표를 발송하였다.

<기부금명단 4면>

40주년 기념인터뷰 앨범 및 동영상 제작

지난 3~4월 진행된 4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한 8명의 원로교수에게 기념 앨범과 동영상 CD를 전달하였다.



<기념앨범>

40주년 기념좌담회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원로 회원과 신세대 회원이 함께하는 40주년 기념좌담회가 6월 3일(화) 오후 6시 학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담회에는 원로회원으로 민현기, 이태희, 허갑범, 신순현, 김영진, 이흥규, 김광원, 손호영, 김영설 교수가 참가했고, 신세대 회원으로 강준구, 고은희, 장혜원, 강선미, 조선욱 교수가 참가했다. 좌담회 내용은 40년사에 게재될 예정이다.



<40주년 기념좌담회 모습>

40주년 기념방담회 "이사장제 : 학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기념사업단은 방담회 "이사장제 : 학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6월 27일(금) 오후 3시 열 계획이다. 방담회는 신순현, 강성구, 이현철, 김광원, 손호영 교수가 참가하고 유형준 실무추진위원장이 진행을 맡게 되며, 회장제에서 이사장제로의 변화 배경과 이사장제 시기의 학회 역사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뉠 예정이다.

역사의 현장 - 「당뇨병학」 발간 (1992년 11월 7일)

당뇨병의 우리말 교과서를 만들다



<좌로부터 당뇨병학 교과서 초판, 2판, 3판 표지>

"시드니에서 열린 13차 IDF를 참가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당뇨병학 교과서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게 태동이 되어 50명이 넘는 집필진을 리스트업하고 부족한 예산을 맞추고 했지요. 출판은 후임이신 허갑범 선생님 때 했습니다." (기념신문 2호 이태희 선생님 인터뷰 중 발췌)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1992년 11월 7일 교과서 「당뇨병학」이 발간되었다. 허갑범 당시 회장은 발간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간의 연구결과와 지식 등을 한데 모아, 우리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여러 중진들의 노고에 의하여 당뇨병 교과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여러 회원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뇨병학은 기초와 임상 의학을 총망라하는 종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분자생물학, 유전학 및 면역학 등 첨단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과 병태생리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 의학 연구에 의하여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 및 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비중을 두어 당뇨병의 최신지견을 「당뇨병학」에 취합 수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총 595페이지의 「당뇨병학」은 66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편찬위원은 김웅진, 이상용, 민병석, 민현기, 최영길, 이태희, 허갑범이었고 편집실무위원은 이병두, 이은직, 유형준, 박용수, 김용성, 이현철이었다. 「당뇨병학」은 의과대학 재학생은 물론 전공의, 각과 전문의 및 여러 보건과학 분야 전공자들에게 당뇨병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후 당뇨병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이후 1998년 5월 8일 제2판이, 2005년 7월 10일 제3판을 발간했다.

40주년 기념우표

기부금 모금 참여 명단 (2차)

총 182명, 10,490,000원 (6월 10일 현재)

"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우표-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6월 10일까지 참여해주신 명단입니다. 총 182명, 10,490,000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시려면 **국민은행 392801-04-067336** (예금주: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으로 입금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회원은 기념사업단(02-714-1968)으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kda40th@diabetes.or.kr)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금액, 입금날짜를 보내주세요.
- 우표 추가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념사업단으로 전화주세요.

명 단(가나다순)

강경구(낙천병원)	김영일(울산대병원)	박세영(화순전남대병원)	윤영길(윤영길내과)	정진욱(전남대병원)
강양교(성가병원)	김영준(연세내과)	박영주(분당서울대병원)	윤종길(윤종길내과)	정철권(산본연세내과)
강재원(강내과)	김용균(김용균내과)	박이병(길병원)	윤호상(윤내과)	정춘희(원주기독병원)
강재황(강내과)	김용주(김용주내과)	박재홍(박재홍내과)	이강인(예수병원)	조동혁(전남대병원)
고경수(상계백병원)	김용태(김용태내과)	박철영(강북삼성병원)	이광우(여의도성모병원)	조진형(평화의원)
고관표(제주대병원)	김윤경	박현강(원주기독병원)	이규춘(서울내과)	조현대(화명한솔병원)
고은희(서울아산병원)	김윤숙(경상대병원)	방명희(중문의원)	이명식(삼성서울병원)	진혜경(단국대병원)
고종학(서울의원)	김윤희(서울대노인병원)	배성진(코끼리내과)	이문규(삼성서울병원)	진홍용(전북대병원)
곽진호(속시원곽앤이내과)	김인원(세진내과)	백영직(백내과)	이병두(상계백병원)	차해정(성가병원)
국돈표(국내과)	김정민(성가롤로병원)	백종렬(백내과)	이병완(한강성심병원)	채수인(우리들내과)
권계형(권내과)	김종덕(원광대병원)	변상희(부산백병원)	이상준(푸른미래내과)	최경애(한강성심병원)
권석윤(사노피아벤티스)	김종웅(김종웅내과)	변정란(천안의료원)	이성미	최광웅(최광웅내과)
권수경(동래백병원)	김종화(세종병원)	서교일(순천향대병원)	이숙경	최금희(부산성모병원)
김광원(삼성서울병원)	김지민(수영한사병원)	서지영(곽병원)	이영수(세종내과)	최동석(신라병원)
김군순(대전성모병원)	김진관(유엔김내과)	손승현(수영한서병원)	이은숙(상주성모병원)	최동섭(고려대병원)
김기선(김내과)	김진수(김진수내과)	손승환(손승환내과)	이은정(강북삼성병원)	최선정(아주대병원)
김대중(아주대병원)	김철우(김철우내과)	손태서(의정부성모병원)	이정림(서울아산병원)	최신영(최신영내과)
김동규(늘푸른내과)	김철희	손현식(의정부성모병원)	이정호(강북삼성병원)	최영길(강남차병원)
김동림(건국대병원)	김현진(울지대병원)	송광선(송광선내과)	이지현	최영주(허내과)
김동빈(성바오로병원)	김형진(명지병원)	송기호(성모병원)	이창원(부산성모병원)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김동윤(전주예수병원)	김혜선(경찰병원)	송민경(평촌연세내과)	이태호(양구한림의원)	태명산(태명산내과)
김동찬(중앙내과)	김혜수(대전성모병원)	송민주(전북대병원)	이태희(광주의원)	하근수(참사랑복지의원)
김동희(김동희내과)	김혜진(강남차병원)	송준현(연세내과)	이형우(영남대의료원)	하헌주(이화여대)
김동희(상계백병원)	김홍범(드림내과)	신순현(중앙대용산병원)	이희수(명동약국)	한덕중(서울아산병원)
김명준(가톨릭대)	나민아(부산의료원)	신옥식(소망의원)	임동미(건양대병원)	한마음내과
김미경	남광우(남광우내과)	신용민(신내과)	임은주(동래백병원)	한재호(한재호내과)
김미정(푸른미래내과)	노은숙(경찰병원)	신현수	임현숙(인하대병원)	한제호(성모자애병원)
김민선(서울아산병원)	노정현(일산백병원)	심강희(삼성의료원)	장순섭(우리의원)	현주숙(충남대병원)
김병상(시지미래내과)	당뇨병교육영양사회	안규정(경희동서신의학병원)	장이선(대전성모병원)	형근영(형근영내과)
김상욱(강원대병원)	류동열(이대목동병원)	안동석(안내과)	장학철(분당서울대병원)	혜성병원
김선두(희망내과)	박근석(박근석내과)	안지현(중앙대병원)	전숙(경희의료원)	홍성관(서울엔도내과)
김성훈(제일병원)	박미정(아주대병원)	여경오(대전성모병원)	정동진(전남대병원)	홍성애(한강성심병원)
김순구(대구보건대)	박상호(양산연합의원)	염혜선(분당서울대병원)	정민영(전남대병원)	홍원표(홍원표내과)
김신곤(안암병원)	박석오(광명성애병원)	유철재(유철재내과)	정봉규(광양제철부속병원)	황준화(황준화내과)
김여주(천안병원)	박석원(분당차병원)	윤건호(강남성모병원)	정우진(정우진내과)	
김영건(충남대병원)	박선영(서울위생병원)	윤광선(윤내과)	정준용(정준용내과)	
김영선(김&윤내과)	박성배(동산병원)	윤상호(제일내과)	정지영(오산고려내과)	

40주년 기념사업단 중간 활동보고

40주년 기념사업단은 2007년 10월 결성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슬로건 공모, 엠블렘 제작, 원로교수 인터뷰, 신문 발행, 우표 제작, 기념좌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40년 역사를 충실히 엮어나가겠습니다.

2007. 10.	40주년 기념사업단 결성
2008. 01. 08	원로회원 대상 기념사업단 보고회 및 좌담회
2008. 01. 14	기념사업단 직원 채용
2008. 01. 18	40주년 슬로건 공모 개시
2008. 02. 01	40주년 슬로건 확정

2008. 02. 12	40주년 기념사업단 헌판식 40년사 편찬 출판사 다니기획 선정
2008. 02. 19	40주년 기념 엠블렘 확정
2008. 03 ~ 04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 (총 8명)
2008. 03. 20	40주년 기념신문 창간호 발행
2008. 03. 22	학회 홈페이지 40주년 이미지로 수정
2008. 04. 22	40주년 기념신문 제2호 발행
2008. 04. 29	40주년 기념우표 제작완료 및 전체회원 발송
2008. 05. 08 ~ 10	춘계학술대회에서 기념우표 기부금 판매
2008. 05. 22	40주년 기념신문 제3호 발행
2008. 06. 03	40주년 기념좌담회 개최